

#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변화

—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

정 성 미\*

## I. 머리말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단계별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되었다. 차별시정제도는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2007년 7월 우선적으로 시행되었고, 100~299인 사업장은 2008년 7월,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현황과 변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2008년 8월 조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비롯해 각년도 조사된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임금 및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수혜여부, 노조가입 여부 등의 변화 모습을 활용하여 근로조건 격차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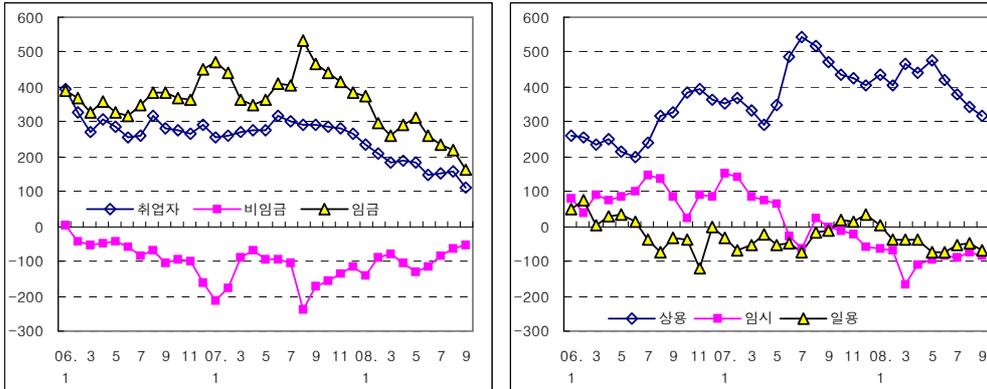
## II. 비정규직 규모 변화

2008년 8월 취업자는 23,617천 명으로 전년 8월 대비 159천 명(0.7%)이 증가하여 취업자 증감추이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 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영향으로 인해 비임금근로자가 크게 감소한 것과 더불어 최근 임금근로자 일자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그림 1] 취업자(좌) 및 임금근로자(우)의 증감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리 창출규모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는 2008년 8월 상용근로자가 전년 8월 대비 344천 명(3.9%)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74천 명(-1.5%) 감소하였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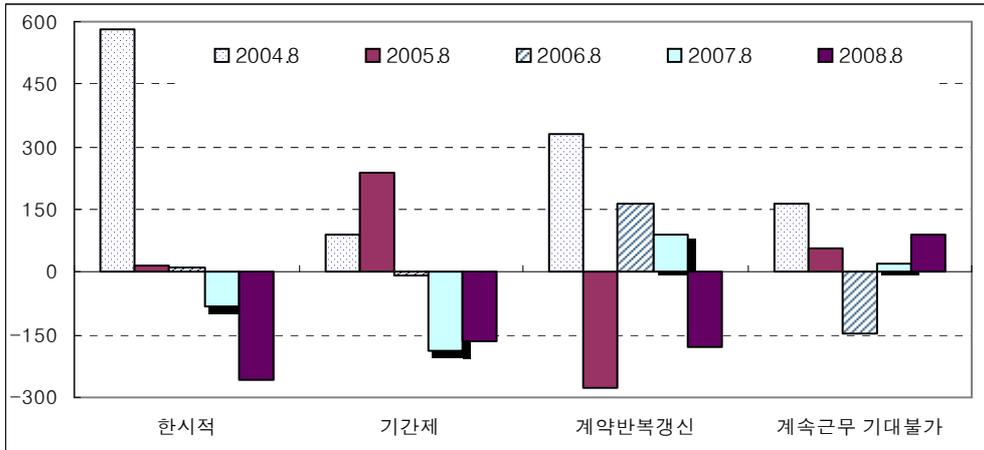
<표 1>의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추이에 따르면, 2008년 8월 정규직 근로자는 10,658천 명으로 조사 이래 최대 규모인 479천 명이 증가하였다. 반면, 2008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445천 명으로 258천 명이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33.8%를 나타냈으며,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이와 같이 2008년 8월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한시적 근로자의 감소(-258천 명)를 들 수 있다(그림 2 참조). 한시적 근로자 구성의 변화를 세부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166천 명 감소하여 조사 이래 가장 낮은 비중인 43.4%를 나타냈다. 또한 정규직과 유사한 근로조건을 가지는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가 181천 명 감소한 반면, 한시적 근로자 중 근로조건이 낮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는 89천 명이 증가하였다.

한편 평소 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27천 명 증가한 1,229천 명을 기록하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전형근로자 중 가정내(-60천 명), 파견(-35천 명), 특수고용(-40천 명), 일일근로(-27천 명)에서 감소를 보인 반면, 용역(48천 명)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 고용형태의 감소에 의해 비전형근로자는 2,137천 명으로 71천 명 감소하였으나,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8월에 비해 0.5%p 증가한 39.2%를 나타냈다.

[그림 2] 한시적 근로자 세부 고용형태 증감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표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천 명, %)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임금근로자	14,149 [100.0]	14,584 [100.0]	14,968 [100.0]	15,351 [100.0]	15,882 [100.0]	16,104 [100.0]
정규직	9,542 [67.4]	9,190 [63.0]	9,486 [63.4]	9,894 [64.5]	10,180 [64.1]	10,658 [66.2]
비정규직	4,606 [32.6]	5,394 [37.0]	5,483 [36.6]	5,457 [35.5]	5,703 [35.9]	5,445 [33.8]
한시적	3,013 (65.4)	3,597 (66.7)	3,614 (65.9)	3,626 (66.5)	3,546 (62.2)	3,288 (60.4)
기간제	2,403 (52.2)	2,491 (46.2)	2,728 (49.8)	2,722 (49.9)	2,531 (44.4)	2,365 (43.4)
계약반복갱신	248 ( 5.4)	580 (10.8)	302 ( 5.5)	465 ( 8.5)	555 ( 9.7)	374 ( 6.9)
계속근무 기대불가	362 ( 7.9)	526 ( 9.7)	585 (10.7)	439 ( 8.1)	460 ( 8.1)	549 (10.1)
시간제	929 (20.2)	1,072 (19.9)	1,044 (19.0)	1,135 (20.8)	1,201 (21.1)	1,229 (22.6)
비전형	1,678 (36.4)	1,948 (36.1)	1,907 (34.8)	1,933 (35.4)	2,208 (38.7)	2,137 (39.2)
파견	98 ( 2.1)	117 ( 2.2)	118 ( 2.1)	131 ( 2.4)	174 ( 3.1)	139 ( 2.6)
용역	346 ( 7.5)	413 ( 7.7)	431 ( 7.9)	498 ( 9.1)	593 (10.4)	641 (11.8)
특수근로	600 (13.0)	711 (13.2)	633 (11.5)	617 (11.3)	635 (11.1)	595 (10.9)
가정내	166 ( 3.6)	171 ( 3.2)	141 ( 2.6)	175 ( 3.2)	125 ( 2.2)	65 ( 1.2)
일일	589 (12.8)	666 (12.3)	718 (13.1)	667 (12.2)	845 (14.8)	818 (15.0)

주: [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며, ( )안은 비정규직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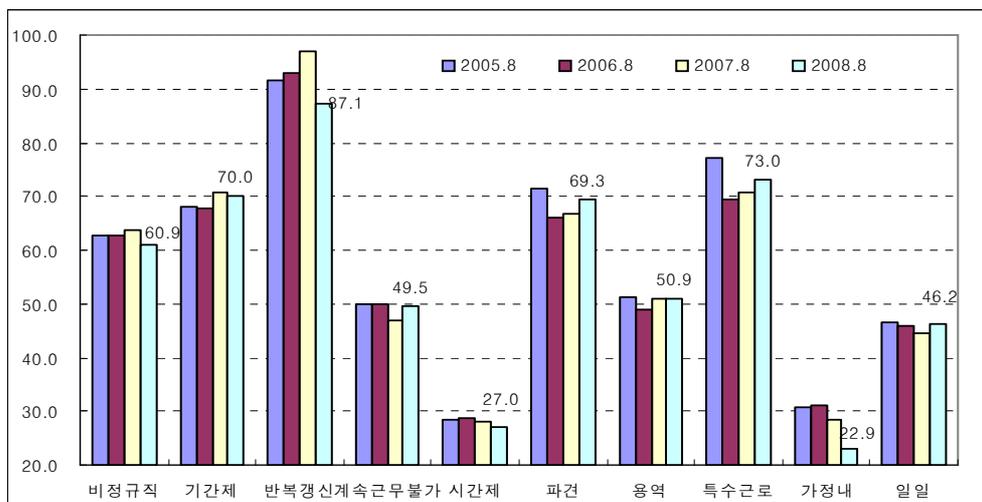
### Ⅲ 임금

2008년 8월 비정규직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은 129만6천 원으로 2007년 8월에 비해 1.6% 증가하였고,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12만3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5.9% 증가하였다(부표 2 참조). 비정규직의 임금증가율이 정규직의 임금증가율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2007년 63.5%에 비해 2008년 60.9%로 그 격차가 증가하였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대임금 수준이 많이 개선된 기간제 근로와 계약반복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올해 들어 하락하였다.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은 70.0%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정규직과 근로조건이 비슷한 계약반복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는 87.1%( $-9.9\%$ )로 임금수준이 크게 하락하여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대폭 증가하였다.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증가한 고용형태는 특수근로, 파견근로, 일일근로인 반면, 가정내 근로, 시간제 근로, 용역근로는 상대임금 수준이 감소하였다.

[그림 3]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정규직=100)

(단위: %)



주: 정규직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고용형태의 상대임금 수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월평균 임금총액을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전환하여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을 살펴보았다(표 2 참조). 월평균 임금과 마찬가지로 2008년 8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임금수준도 하락하였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 8월에 비해 3.5% 증가하여 정규직의 임금증가율 7.9%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는 2007년 70.9%에서 2008년 68.0%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한시적 근로자는 지난 해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수준이 개선된 기간제 근로에서 상대임금 수준은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계약반복갱신자의 상대적 시간당 임금수준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월평균 임금근로자로 본 내용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세부 고용형태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64.8%에 그쳤다.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여 각각 71.3%, 49.1%를 기록하였고,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가정내 근로와 일일근로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졌다.

<표 2> 근로형태별 시간당 상대임금 수준 추이(정규직=100)

(단위: %)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73.6	70.5	71.0	70.9	68.0
한시적	75.9	72.4	74.3	76.1	72.7
기간제	75.6	74.5	74.6	76.3	75.1
계약반복갱신	96.3	89.1	94.0	98.1	88.4
계속근무 기대불가	54.7	54.1	51.3	48.0	51.6
시간제	80.2	76.7	73.1	66.6	64.8
비전형	66.0	63.2	60.1	60.1	59.4
파견	78.0	76.1	66.3	70.8	71.3
용역	50.0	48.4	46.1	48.4	49.1
특수근로	86.1	83.2	81.4	79.9	79.7
가정내	43.1	47.8	42.9	34.9	36.4
일일	55.2	53.7	51.5	52.0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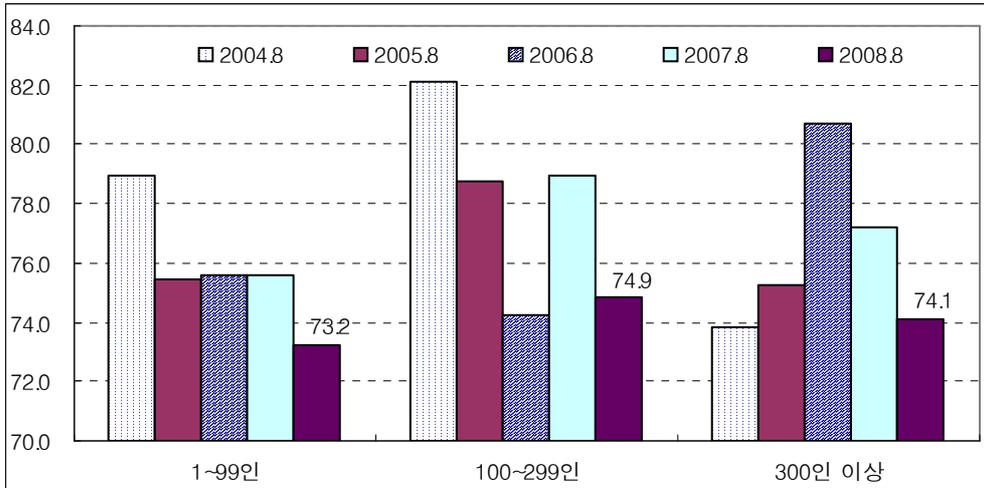
주: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임.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총액/(주당 평균근로시간/7×30.4)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의 시간당 상대임금(정규직=100)

(단위: %)



주: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규모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임.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총액/(주당 평균근로시간×30.4)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또한 [그림 4]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의 시간당 상대임금의 하락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73.2%에 그치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또 100~299인 사업체의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79.0%(2007년 8월)에서 74.9%(2008년 8월)로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수준도 2007년 8월 이후 감소하였다(2006. 8 80.7% → 2008. 8 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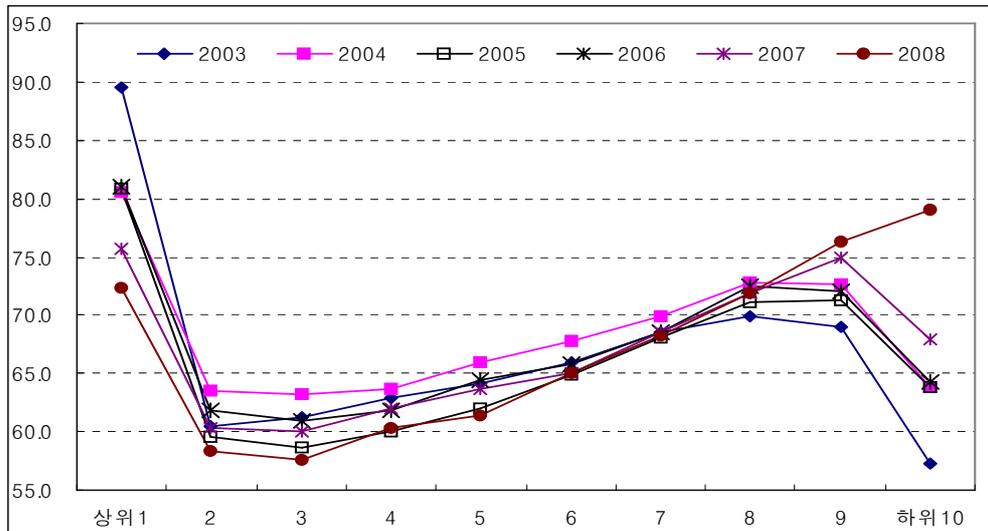
특히 모든 사업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있는 한시적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이 크게 하락하여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가 증가하였다(부표 2 참조).

단순 평균임금으로만 임금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여러 제한점과 해석의 부족함이 있어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10분위로 나눠 본 분위별 상대임금과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시간당 임금으로 본 임금분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하위분위에서 개선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간 및 상위분위의 임금격차는 증가하고 있다(그림 5 참조). 임금분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하위 10분위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60%를 하회하던 수준에서 8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그림 5] 임금분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

(단위: %)



주: 상위 1은 소득이 높은 분위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이 낮은 분위기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나타났다. 반면, 상위 1분위에서는 90% 수준에서 70% 초반의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중간소득계층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65% 전·후반의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시간당 임금 중위수준(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의 2/3 이하 임금을 받는 자를 저임금근로자로 정의할 경우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2008년 8월 임금근로자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6.0%, 정규직이 19.0%임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분위 중 하위계층의 임금격차가 많이 개선된 것에 비해서도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적은 고용형태는 계약반복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 파견근로, 특수근로이며 이들은 각 집단에서 2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절반이 넘는 고용형태는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이며 특히 가정내 근로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80%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 근로형태별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추이

(단위: %)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임금근로자	24.1	26.3	26.6	25.8	27.4	26.0
정규직	17.6	19.7	19.4	19.0	20.2	19.0
비정규직	37.7	37.5	39.1	38.3	40.2	39.7
한시적	36.8	35.8	37.7	36.0	36.8	36.4
기간제	37.1	36.2	35.5	36.0	36.3	33.8
계약반복갱신	22.3	17.9	27.3	19.5	19.2	20.9
계속근무 기대불가	44.9	53.5	53.6	53.7	60.6	58.5
시간제	41.4	44.0	46.6	43.4	49.6	52.7
비전형	42.4	41.9	43.3	46.0	47.1	43.9
파견	27.3	34.9	31.5	34.2	32.8	23.9
용역	58.3	58.3	56.0	63.3	59.5	56.3
특수근로	23.3	22.1	25.5	27.4	30.8	23.8
가정내	80.3	67.2	65.7	71.6	80.4	79.6
일일	47.4	50.0	50.9	48.1	52.0	51.0

주: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이하 임금을 받는 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 IV. 근로조건

### 1. 사회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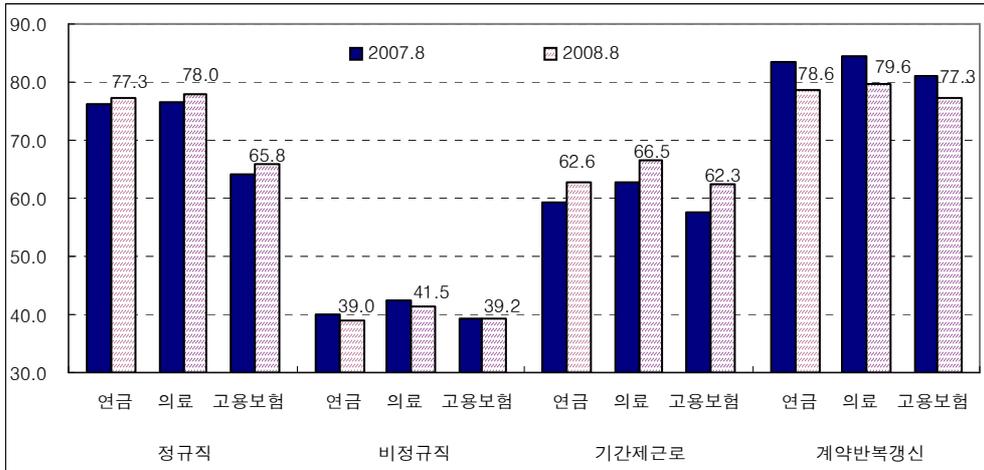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를 살펴보는 중요한 변수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실태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지역 가입자를 제외하고서 사업장 가입자만 고려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0% 수준으로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림 6]을 보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가입률은 2008년 8월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계약반복갱신자의 가입률은 모두 감소하였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 8월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39.2%에 머물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거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부여받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에 가깝거나 높은 고용형태는 한시적 근로자 중 계약반복

[그림 6]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표 4>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시간제	2.4	2.1	3.2	3.3	6.4	3.7	2.3	3.8	4.0	6.1	3.6	2.2	3.2	3.7	6.3
파견	62.8	60.0	66.5	66.2	70.5	66.0	61.0	66.3	67.4	71.9	63.7	59.6	65.1	67.9	72.2
용역	53.7	54.9	53.7	55.5	56.3	68.5	65.8	67.4	73.1	71.6	52.8	55.0	52.5	59.6	60.9
특수근로	26.1	21.2	10.0	9.1	6.9	28.0	20.8	9.7	8.7	6.4	24.1	16.8	7.7	7.9	7.5
가정내	13.7	1.4	2.1	1.3	1.6	14.8	0.6	1.3	1.3	0.9	13.8	1.4	1.3	1.3	1.6
일일	0.5	1.1	0.7	0.5	0.9	0.3	0.8	1.0	0.8	0.9	1.6	0.9	0.7	0.7	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갱신자와 파견근로, 용역근로자인 반면,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 특수근로, 가정내 근로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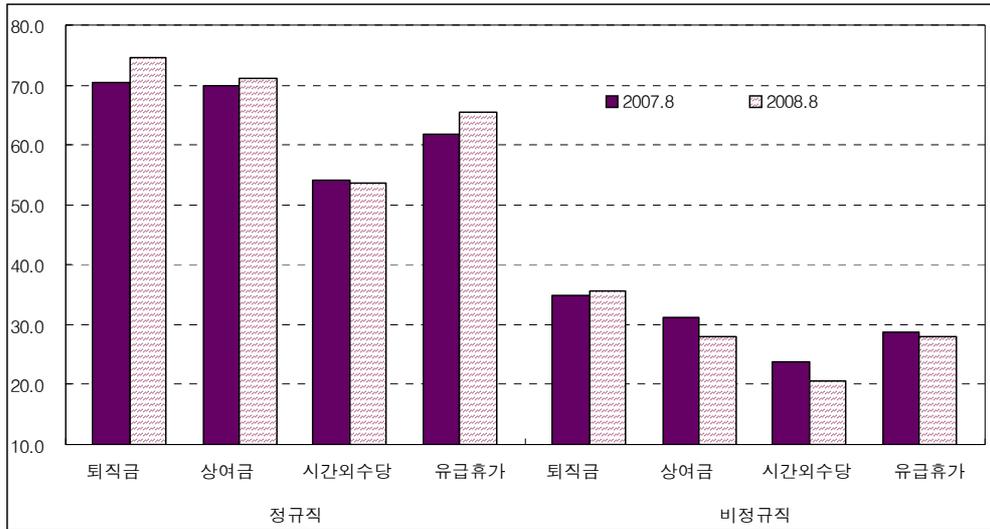
근로형태별로 증감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 시간제 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증가하였지만, 특수근로와 계약반복갱신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소폭 감소하였다.

## 2. 기업복지

비정규직의 기업복지 수혜율 또한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여 정규직과 격

[그림 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업복지 수혜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또한 고용형태별 기업복지 수혜율 수준은 사회보험 가입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퇴직금 수혜비중은 2008년 8월 35.6%(0.8%p)로 다소 높아졌지만, 상여금(-3.2%p), 시간외수당(-3.1%p), 유급휴가(-0.7%p) 등 다른 기업복지 수혜율은 감소하였다. 정규직에서의 기업복지를 보여주는 항목들의 수혜율이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 3. 노조 가입률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여 2008년 8월 4.4%인 반면,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여 17.0%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조 가입률의 격차는 주로 비정규직 사업장에 노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 중 유노조 사업장에서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가입인 비정규직은 소폭 감소하였다.

정규직이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있는 경우는 2008년 8월 30.7%로 소폭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007년 8월 16.7%에서 2008년 8월 16.4%로 감소하였다. 한편 정규직과 비슷한 근로조건을 보이는 계약반복갱신자의 노조 가입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근로형태별 노조 가입률

(단위: %)

	2006. 8				2007. 8				2008. 8			
	무노 조	유노조			무노 조	유노조			무노 조	유노조		
		가입 대상 아님	미가 입	가입		가입 대상 아님	미가 입	가입		가입 대상 아님	미가 입	가입
임금근로자	77.0	6.6	5.1	11.3	75.2	7.1	5.7	12.1	74.2	7.6	5.5	12.7
정규직	72.2	6.1	6.6	15.1	70.7	6.1	7.2	16.0	69.3	6.6	7.1	17.0
비정규직	85.7	7.5	2.4	4.3	83.3	8.7	2.9	5.1	83.6	9.7	2.3	4.4
한시적	81.7	9.0	3.4	5.9	77.2	11.2	4.3	7.3	77.0	13.1	3.5	6.4
기간제	81.9	9.6	3.5	5.0	75.9	13.0	4.3	6.8	73.8	15.4	3.9	6.9
계약반복갱신	69.1	9.6	5.9	15.4	70.9	7.7	6.9	14.5	76.0	8.2	4.8	11.0
계속근무 기대불가	94.0	4.2	0.2	1.6	92.5	5.5	0.6	1.3	91.9	6.2	0.7	1.2
시간제	93.9	5.5	0.3	0.4	91.9	7.4	0.5	0.3	88.4	10.6	0.6	0.3
비전형	92.7	4.5	0.8	1.9	91.2	5.3	1.2	2.3	91.9	4.8	0.9	2.4
파견	85.1	6.7	2.4	5.7	83.2	7.8	4.0	5.0	80.8	9.4	2.7	7.1
용역	90.5	3.0	1.7	4.9	86.2	5.9	2.4	5.5	89.7	4.9	1.5	4.0
특수근로	90.1	8.5	0.5	0.8	89.8	8.1	0.7	1.5	90.7	6.5	0.9	1.9
가정내	97.8	2.0	0.0	0.2	99.5	0.5	0.0	0.0	98.4	1.6	0.0	0.0
일일	98.1	1.7	0.2	0.1	97.9	2.0	0.0	0.0	96.8	2.7	0.0	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 V. 맺음말

분석결과 차별시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간 근로조건 격차는 지속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고용형태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었지만, 전 사업체 규모에서 진행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의 하락과 40% 수준의 저임금 비정규직 비중 및 사회보험 가입률 감소현상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8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 용역근로 등 근로조건이 낮은 비정규직이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은 비정규직의 구성효과에 기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상대적인 근로조건은 하락하여 고용의 질은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KLI**

<부표 1>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단위: 천 원, %)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임금근로자	1542.3	1593.3	1655.8	1745.5	1846.2
정규직	1771.4 (100.0)	1845.7 (100.0)	1908.2 (100.0)	2008.5 (100.0)	2127.3 (100.0)
비정규직	1151.8 ( 65.0)	1156.4 ( 62.7)	1198.2 ( 62.8)	1276.0 ( 63.5)	1295.9 ( 60.9)
한시직	1231.7 ( 69.5)	1240.3 ( 67.2)	1313.0 ( 68.8)	1440.3 ( 71.7)	1457.8 ( 68.5)
기간제	1187.4 ( 67.0)	1258.2 ( 68.2)	1292.6 ( 67.7)	1418.8 ( 70.6)	1489.4 ( 70.0)
계약반복갱신	1704.3 ( 96.2)	1692.3 ( 91.7)	1774.1 ( 93.0)	1949.0 ( 97.0)	1853.6 ( 87.1)
계속근무 기대불가	920.0 ( 51.9)	924.0 ( 50.1)	951.0 ( 49.8)	944.7 ( 47.0)	1052.0 ( 49.5)
시간제	539.0 ( 30.4)	522.3 ( 28.3)	550.6 ( 28.9)	560.9 ( 27.9)	573.8 ( 27.0)
비전형	1067.5 ( 60.3)	1080.6 ( 58.5)	1045.8 ( 54.8)	1111.9 ( 55.4)	1197.0 ( 56.3)
파견	1271.5 ( 71.8)	1316.0 ( 71.3)	1260.8 ( 66.1)	1341.3 ( 66.8)	1473.2 ( 69.3)
용역	922.4 ( 52.1)	948.1 ( 51.4)	932.9 ( 48.9)	1023.5 ( 51.0)	1083.3 ( 50.9)
특수근로	1390.5 ( 78.5)	1422.4 ( 77.1)	1321.9 ( 69.3)	1421.8 ( 70.8)	1553.4 ( 73.0)
가정내	563.7 ( 31.8)	566.8 ( 30.7)	596.4 ( 31.3)	568.4 ( 28.3)	486.5 ( 22.9)
일일	836.6 ( 47.2)	859.5 ( 46.6)	872.9 ( 45.7)	891.8 ( 44.4)	983.4 ( 46.2)

주: ( )안은 정규직=100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부표 2> 사업체 규모별·근로형태별 상대적 시간당 임금수준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단위: %)

	비정 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 고용	가정 내	호출
		한시직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	계속근 무기대 불가	기간제							
2004	1~99인	67.4	71.1	68.6	99.2	58.9	33.8	66.0	79.7	57.4	85.8	32.7	53.4
	100~299인	77.8	79.5	74.3	98.2	41.6	34.4	68.6	57.2	53.7	83.8	82.6	45.6
	300인 이상	71.7	73.8	72.4	82.3	31.6	25.6	55.8	71.6	40.3	76.3	43.3	17.5
2005	1~99인	64.8	68.2	69.3	87.8	56.1	31.2	64.3	75.5	56.9	85.3	34.2	52.4
	100~299인	74.0	76.4	74.9	99.5	52.2	34.6	62.6	55.6	48.1	79.2	50.8	48.6
	300인 이상	72.4	75.2	72.8	100.0	32.7	25.8	57.3	80.7	44.7	58.8	27.2	25.2
2006	1~99인	64.4	69.3	67.9	95.4	55.5	31.9	60.0	69.4	53.4	76.8	34.2	51.1
	100~299인	72.0	75.0	75.2	80.7	50.7	33.6	58.8	70.1	50.8	63.1	62.3	46.7
	300인 이상	76.0	78.9	77.1	91.6	36.8	24.0	55.8	63.8	44.0	66.0	35.5	55.1
2007	1~99인	65.6	73.0	72.4	97.6	53.1	31.2	61.2	72.1	56.7	77.8	31.9	50.4
	100~299인	74.8	75.2	73.5	89.2	41.8	30.6	68.1	78.1	50.4	96.6	20.5	27.2
	300인 이상	74.5	78.0	71.7	102.6	29.1	20.0	42.4	50.2	41.5	45.3	22.7	21.3
2008	1~99인	63.6	70.1	71.6	87.4	55.3	29.9	62.8	79.6	56.5	81.6	25.4	52.4
	100~299인	70.5	73.8	73.8	80.5	54.2	35.1	62.7	55.4	53.8	78.1	0.0	44.1
	300인 이상	70.9	73.1	71.0	94.5	36.8	22.1	42.6	36.6	46.9	47.4	26.6	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부표 3> 근로형태별 기업복지 수혜율

(단위: %)

	퇴직금					상여금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임금근로자	54.1	54.1	54.6	57.5	61.4	51.6	52.1	53.3	55.9	56.6
정규직	67.4	68.6	67.9	70.3	74.5	65.8	67.4	67.5	69.8	71.2
비정규직	31.3	28.8	30.3	34.8	35.6	27.5	25.5	27.7	31.1	27.9
한시적	40.1	38.3	41.7	50.1	51.7	35.2	34.2	38.4	44.8	41.1
기간제	41.2	43.8	43.0	52.9	57.9	35.0	38.9	38.5	46.0	45.3
계약반복갱신	70.7	58.4	70.5	75.7	76.3	66.5	54.3	69.2	72.4	66.7
계속근무 기대불가	1.1	2.0	3.1	3.9	8.1	1.2	1.8	5.3	5.0	5.6
시간제	2.0	1.8	1.6	1.9	3.7	1.8	1.8	2.0	3.1	3.6
비전형	21.5	16.8	16.2	20.6	24.3	17.8	13.4	12.6	15.6	14.9
파견	54.5	51.0	50.9	58.6	66.1	46.0	48.2	40.6	48.3	48.4
용역	47.9	44.3	47.2	55.4	60.5	35.9	30.5	34.1	38.0	36.1
특수근로	19.2	10.8	1.6	3.4	6.3	18.0	10.5	2.3	4.7	3.6
가정내	12.6	1.0	1.0	0.4	1.6	11.0	1.5	1.7	0.4	0.7
일일	0.2	0.1	0.1	0.3	0.4	0.0	0.1	0.5	0.8	0.0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임금근로자	43.4	43.6	42.4	43.3	42.4	45.8	45.0	43.7	49.8	52.8
정규직	55.8	56.6	53.9	54.2	53.5	58.2	58.0	55.0	61.7	65.4
비정규직	22.2	21.1	21.5	23.8	20.7	24.6	22.7	23.1	28.7	28.0
한시적	28.3	27.8	29.6	34.3	30.2	31.8	30.7	31.9	41.9	41.5
기간제	27.7	31.0	29.4	35.1	33.6	31.4	34.5	32.8	44.7	46.1
계약반복갱신	54.2	45.8	53.7	55.9	47.2	57.6	49.5	51.7	61.2	65.6
계속근무 기대불가	2.7	3.7	5.4	3.9	3.6	5.1	2.8	4.8	3.2	5.4
시간제	1.8	2.5	2.4	2.3	2.2	1.6	1.4	2.1	2.3	2.4
비전형	14.0	11.3	9.6	12.3	11.2	14.3	11.0	10.8	14.2	15.5
파견	34.6	37.2	35.9	42.2	43.1	43.4	40.2	38.9	45.3	49.9
용역	26.6	27.9	25.5	30.2	24.8	25.4	25.0	28.8	35.6	37.5
특수근로	13.9	7.1	0.9	1.7	1.5	15.0	8.6	2.1	3.5	4.0
가정내	9.0	0.9	1.0	0.0	0.7	11.2	1.0	0.4	0.4	1.6
일일	2.1	1.7	1.1	1.3	1.5	0.1	0.1	0.0	0.1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